

Formosa, 한국 석유화학기업 견제!

Propylene 유도품 공급이 신호탄 ... LDPE 공급은 9월 중순 결정

Formosa Korea가 국내 석유화학 시장 진입을 위해 본격적인 시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Formosa Korea는 그동안 플라스틱 종이인 <백진주>와 프린터용 전문 인화지인 <디카~짱>을 선보여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석유화학제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Formosa Korea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준비중인 석유화학제품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Propylene의 유도품으로 알렸는데 이미 수요기업들에게 품질을 의뢰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Formosa Korea는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 Propylene 유도품 시장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국내 기업들도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Formosa Korea의 국내시장 진출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Formosa Korea 관계자는 <Formosa Korea가 국내 석유화학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Formosa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맞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석유화학기업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ormosa Korea는 국내시장에 LDPE(Low-Density Polyethylene) 공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준비중이었으나 국내 유통망의 문제로 9월 중순 이후 국내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8>